



### 자녀와 함께 하는 불교

올해 한국갤럽의 종교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교인구 비율이 전체의 24.4%로 가장 높으며, 두드러진 성장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종교 비율은 개신교에 비해 불교인의 비율이 월등히 떨어짐을 볼 때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불교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위기의식마저 들게 한다.

청소년 불자가 줄어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 하나가 가정 내에 불교 교육이 없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부모가 불교를 믿으면 자녀가 불교를 믿던 믿지 않던 암묵적인 불교인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부모의 종교에서 이탈해 다른 종교를 갖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 중에는 마음에 더러움이 적은 자도 있거니와 법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도 악에 떨어지고 말리라. 들으면 법을 깨달을 것이 아닌 사찰·의식 등에 부담 안 갖도록 부모들이 생활불교 실천해야"



서 절에 가면 두려움이나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들이 심리적 거리감이나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주 절에 데리고 다니거나 법회에 참석하도록 하며, 불교적인 요소들을 많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인연 만들기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가 불교를 잘 모르더라도 아는 만큼, 배우는 만큼 가르쳐 주도록 하자. 그들은 순수하고 모험심이 강하며 진리에 대한 열정이 어른들보다 더 뜨겁기에 빨리 배우고 이해할 것이다. 불교를 알고 이해하는 만큼 그들의 눈은 열릴 것이고 불교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교육의 대상이나 부모의 부속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수행하는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 공부에 몰두해야 한다거나, 여러다 하는 이유로 그들을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 함께 독경하고 열불하고 참회하고 발원하고 기도하도록 하자.

가정이 도량이 되고, 가족 모두가 상가의 구성원이 되어 생활이 곧 수행이 될 때 물러남이 없는 신심을 성취하고 한 줄기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불자들 모두가 관념적으로만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할 것이 아니라 자녀부터 불교적 분위기 속에서, 불교를 배우고 이해하며, 불교적 가치관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하는 불교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 양동효(명동고교법사)

출가자의 '수행과 계율' 문제는 언제나 민감하다. 승가에서 이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갈수록 문명화되고 복잡해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수행자에게는 자동자, 육식, 의복, 처소 같은 문제들로 인해 겪는 갈등도 적지 않다.

9월 3일 남원 실상사에서는 이번 문제들에 대한 스님들의 공개적인 논쟁이 열렸다. 선운도량(대표 철오·현각)은 매년 불·가을에 열리는 선운논강의 10번째 주제로 '수행과 계율'을 정했다. 이번 논쟁은 기존과는 달리 논주의 발제문 발표와 3시간의 집중 강의 후 종합토론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논쟁의 논주로 나선 해인율원장 혜능 스님은 발제문을 통해 승가의 특징, 교단에서 승가의 위치, 출가의 의미, 승가의 존재 근거로서 '계와 율'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혜능 스님은 수행과 계율의 관계를 설명하

면서 "계율은 모든 수행의 근본으로 수행의 환경을 만들고 도와주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최근 계율에 대한 수행자들의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원인이 종단의 수계 체계에

확립할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혜능 스님은 그 결과 "출가자로서 삶의 방식에 대한 철저한 교육 없이 교리를 배우거나 선을 참구하다보니 개인적인 얕이나

그러나 전통적인 승가의 생활 방식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오늘날의 승가에서도 이런 계율의 문제가 현대 출가자들의 수행에 있어서도 절대적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와 관련해 혜능 스님은 최근 출가수행자가 모인 승단의 질서인 계율을 세간적 논리나 관점에서 해석하려 하는 풍토를 경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처님은 열반을 앞두고 세존이 계시지 않는 승단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담마(dhamma)와 비냐야(vinaya) 즉, 오직 법과 율에 의지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혜능 스님은 발제문 마지막까지 법과 율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실천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선운논강 대표 철오 스님은 "그동안 계율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많았지만 정작 현실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공개적 토론의 자리는 드물었다"고 밝히고 "승단내부의 계율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논쟁의 취지를 설명했다.

(02)3676-4060 조용수 기자

## “세상 변해도 계율인식 분명해야”

### 9월3일 '수행과 계율' 주제 선운논강 논주 혜능 스님 '수계체계' 등 비판



는 승가가 한곳에서 정작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명의 발달로 자동차, 비행기의 이용이 일상화되고, 잦은 이동은 채식위주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등의 현실적 문제로 수행자가 계율을 지키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

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미니계나 구족계를 받는 수계가 지계생활의 시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특강 몇 시간이면 때울 수 있는 요식행위로 인식되고 있어, 스님들의 기본 생활 질서인 계율을 충분히 습득해 출가수행자로서의 가치관을

지연은 있을지라도 청정화승단 구성원의 의무나 질서 의식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승단의 청정성과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 교과과정 계율에 대한 내용이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근현대 조계종 사상사 세미나

9월17일, 경허·만공 등 근 현대 인물 재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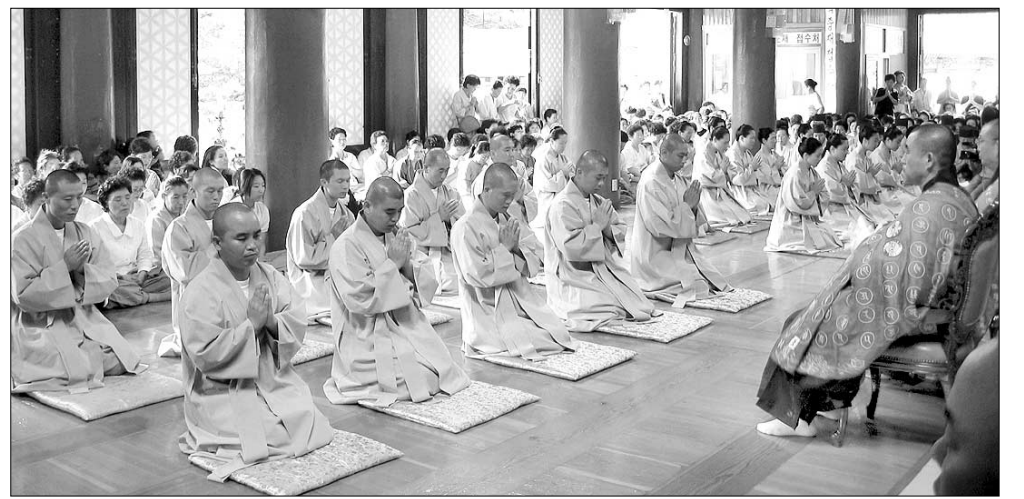
조계종 불학연구소(소장 화랑)는 종단의 정체성과 수행풍토를 재조명하기 위해 '근·현대 조계종 사상사 세미나'를 9월 17일 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 불학연구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구한말에서 해방전까지의 대표적 고승 경허·만공·용성·한암·학명·효봉 스님 등의 사상과 업적을 정리하게 된다.

이날 세미나에는 동국대 고영섭 교수가 '경허-근대선의 개혁자, 한국선 특성정비', 동국대 강사 호탄 스님이 '만공-경허선의 계승자, 선학원 창건과 재건',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이 '용성-선

교계율의 종합성, 함일불교, 선능 불교'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이 '한암-계·정·혜 삼학의 구현자, 지불불교의 계승', 부원대 김광식 교수가 '학명-선농을 개혁자, 선원의 개혁' 불학연구소 김방용 연구원이 '효봉-근대선을 현대선으로 연계, 가야총림' 등을 각각 발표한다.

한편, 불학연구소는 이후 인물을 통한 근·현대 불교사 조망작업의 일환으로 1차에 '선사', 2차에 '강백', 3차로 '포교'를 중심으로 한 분야별, 주제별 연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조용수 기자



천태종 새 스님 23명 수계. 천태종(총무원장 윤덕은)은 8월 17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수계산림을 열고, 3년여의 행차교육과 수계대상자 교육을 이수한 남행자 10명과 여행자 13명 등 모두 23명에게 심신계를 주었다. 천태종 총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윤덕 스님, 감사원장 정삼 스님을 심사사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 도용 스님은 "출가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갖추고 호트러짐 없이 수행 정진에 임하라"고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었다.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장삼은 원칙적으로 회색만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다만 일상복은 소재, 계절적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는 관계로 일부 금지색 검정, 고통, 빨강, 노랑, 진회색 등을 제외한 회색범위의 무난한 색상을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연구회는 이를 위해 승복제작 업체에 장삼과 가사의 색상 샘플을 제공하고 조계종 스님들의 가사·장삼·일상복 제작의 원칙을 통보하기로 했다.

결망, 수대, 가방 착용에 대한 원칙도 정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로 이들 장삼의 색상은 회색으로 통일하고 피혁제 가방과 등산형 가방은 착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강원 학인들의 경우 짙은 많이 가지고 다니는 특성을 고려해 실용성에 중점을 맞춘 곁망 시제품을 제작, 다음 회의 때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율장에 근거해 수행자의 복색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원칙에 따라 속옷의 색상도 회색로만 통일하기로 했다. 다음 실무 위원회의 오는 10월 6일 열린다.

조용수 기자

### 조계종 사서국장 분해 감사국장 효용 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서국장에 분해 스님(전 감사국장), 감사국장에 효용 스님(전 사서국장)이 각각 8월 17일자로 임명됐다.

분해 스님은 1986년 사미계, 1989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현재 심심사 주지를 역임하고 있다. 효용 스님은 1982년 사미계, 1986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천곡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 장삼·일상복 회색으로 통일

조계종 의제실무연구회, 설문 통해 확정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종진) 의제실무연구회는 최근 스님들의 장삼과 일상복의 색상을 검정, 고통, 진회색을 제외한 회색으로 통일하고 앞으로 행차교육 교과나 구족제 수지자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의제실무연구회는 8월 11일 열

린 제1차 회의에서 지난해 전국 교구본사, 선원, 강원 스님 400명 등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장삼과 일상복의 색상 통일 규정에 대해 논의했다.

설문 조사 결과 장삼의 경우 회색계열인 제일모직의 가마솔 1번, 일상복 가마솔 4번이 각각 선호했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기사작성규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한국불교통신대학·대학원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시	수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 윤, 논, 선, 밀교 각 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 등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 등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원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 자격증 수여
- 특전: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한국 불교 통신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계교육) 참조

---

## 나란다 삼장불학원 학인모집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연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2004년 8월 31일 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 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원비

□ 교 수 진: 활안(한정성)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김진교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한국 불교 금강선원 나란다 삼장 불학원**  
 전화 02)969-2410 / 969-4981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